

특허
정보

친환경적 관개수리시설 출원 급증

소규모 댐, 수문 분야 현재까지 11% 증가
수로관 분야 역시 12% 증가세 보여

최근 저수지 등에 건설되는 소규모 댐, 수문, 수로관 등 관개수리시설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 등에 건설되는 소규모 댐이나 수문 분야의 생태환경과 연관된 출원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 중 2%(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 중 11%(41건)로 급증하였으며, 수로관 분야에서도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전체출원 중 3%(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분야 전체출원의 12%(17건)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관련 출원에서 소규모 댐과 수문 출원량이 수로관 출원량의 약 2.4배로 이는 소규모 댐이나 수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여지가 많은 반면 수로관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비교적 단순한 형상으로 기술개발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1세기 들어 물관리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개 수리시설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및 출원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건설되는 댐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출원들의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Notice!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국내사이트

- ▶ KIPRIS <http://www.kipris.or.kr/index.html>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 ▶ WIPS 세계지적재산정보검색 <http://www.wips.co.kr>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초록, 서지사항과 원문이미지 정보, 한국의 특허, 상표, 의장 검색
- ▶ 천리안 <http://chollian.net> 특허, 실용신안(1983년부터), 의장(1986년부터), 상표출원속보
- ▶ 브랜드웹 <http://www.brandweb.co.kr> 상표검색(1950년부터, 서지사항 및 상표 견본제공), 기타 상표관련 정보제공.
- ▶ PATpen 특허법령·판례 센터 <http://www.patpen.co.kr> 1963년부터 현재까지의 산업재산권 판례 검색, 각종 법령 검색, 특허 관련 실무 자료
- ▶ (주)패턴트인포 <http://www.pat25.co.kr> 특허검색 사이트, 선행기술조사, PM제작, 특허 컨설팅

해외사이트(무료)

- ▶ 미국(USPTO) <http://patents.uspto.gov> 1976년부터 미국특허 검색 및 서지정보 제공, 원문은 별도요금을 부과
- ▶ 미국(IBM) <http://www.patents.ibm.com> 1971년 이후의 미국 특허 검색 및 원문입수 가능, 해상도 낮음
- ▶ 일본(영문) <http://www.patent-inf.tu-ilmenau.de/service/db.html> 일본 영문초록 검색 및 출력
- ▶ 세계(WO) <http://pctgazette.wipo.int> 1998년 이후의 특허 서지정보 제공
- ▶ 유럽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epidos/epr.htm> 조사기관 자료의 다운로드 가능
- ▶ 헝가리 <http://www.hpo.hu/English/szkv/ekerform.cgi> 1993년 이후의 헝가리 특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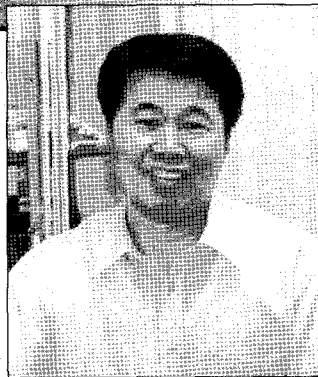
해외사이트(유료)

- ▶ PatentExplorer(미국/유럽) <http://www.patentexplorer.com>
- ▶ QPAT(미국) <http://www.qpat.com>
- ▶ MicroPatent(미국/유럽/세계) <http://www.micropat.com/0/patentweb.html>
- ▶ Japio(일본:일어) <http://www.bunsan.patolis.co.jp>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발명은 프로정신에서
나온다

김병오 회장
전국발명교육연구회
www.inv.or.kr
www.cafe.daum.net/inv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고 즐기는 21세기형 프로정신은 무엇일까?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21세기형 프로정신을 가지는 신인간이 아닐까?

우아하고 품위 있어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제공하는 호수 위의 백조가 실제로는 물 밑에서 아주 바쁘게 발을 저어야 물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조직이라도 자신의 업무를 점점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즉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과제는 철저한 프로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프로정신은 장인정신을 동반하고, 장인정신을 가진 신인간만이 그 분야의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업이 아니라 생업인 자기 업무에 오랜 기간동안 매달리면서 남들 앞에 떳떳이 내 업무에 대한 진정한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박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전문화가 되어있고, 악착같은 끈기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정신은 다른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자신의 업무 한가지에만 몰두하여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는 사명감, 바로 그것이 진정한 프로정신이 아닌가 싶다.

자장면을 배달했던 「번개」, 조모씨! 우리 사회 통념으로는 비전 없어 보이는 중국음식점 배달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배달하는 일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서비스를 베풀고, 손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처음에 그는 철 가방을 들고 시작했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철 가방이 없다. 대신에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007가방을 들고 달린다. 자신이 그동안 자장면을 배달하면서 터득한 배달철학, 즉 손님들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를 강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로정신은 자기의 일에 모든 것을 바쳐 책임을 다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승복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형 아이디어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21세기형 아이디어맨을 만들어내는 프로정신의 의미를 찾아보자.

첫째, 21세기형 프로정신은 모방보다 창조를 즐기는 아이디어맨일이다.

21세기 경쟁의 핵심은 기술개발에 의해 좌우되며, 창조성만의 성공의 열쇠를 갖고 있다.

창조는 자유로운 풍토에서 나온다. 창조의 시작은 고정관념의 탈피에서부터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정관념에 얽여 있으며, 그 매듭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며, 무궁무진한 새로운 논리가 터져 나온다. 누가 먼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느냐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둘째, 21세기형 프로정신은 긍정적인 사고이다.

직장에서의 프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내가 과연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생각보다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이 성공인생으로 이끌며, 그것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실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는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 비록 현실이 마땅찮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목격했었고, 또 우리의 목표지점을 향해 끝까지 뛰었던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21세기형 프로정신은 한계상황을 극복할 때 탄생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한다면 프로가 될 수 없다. 스티븐 호킹스 박사는 불구의 총집합이 된 몸으로 세계 최고 물리학자가 되었고, 오세 불만족의 주인공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머리와 몸통만 남겨진 신체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두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는 다섯 손가락으로도 이루기 힘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며, 입양아 애덤킹(한국명 오철민)은 두 다리를 티타늄으로 만든 의족에 의지하면서도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한계 상황을 극복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이번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술에 대해 질문 하지 않는 선수는 퇴출시키겠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해서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진정한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다”든지, 주변의 진정한 프로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프로정신을 갖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때이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자신의 프로정신을 새롭게 찾아내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아이디어맨, 즉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